

주간 테러동향

Weekly Terrorism Trends

'22.7.29(금)

지역별 테러 동향

Weekly Terrorism Trends

유럽

- 튀르키예 「에르도안」 대통령, 북유럽국가 “테러의 온상” 지칭
 - 7.20 「에르도안」 대통령은 “북유럽 국가들이 테러범들을 지원하는 ‘테러의 온상’과 같으며 자국과 협의한 조치*를 취하지 않을 경우 이들 국가의 NATO 가입을 제지하겠다”며 협의 이행을 강조
 - * 튀르키예는 핀란드 및 스웨덴의 NATO 가입 추진에 비토권 행사를 언급하였으며, 쿠르드 세력 지원금지 등 협의 조건으로 두 국가의 NATO 가입에 조건부 동의
- 벨기에, ‘테러 혐의’ 이란 외교관과 자국민 맞교환 조약 비준 논란
 - 7.21 벨기에 야당은 테러모의 혐의로 자국에 수감중인 이란 외교관 (아사디, 50세)과 간첩혐의로 이란에 수감중인 자국민과의 맞교환 조약을 의회에서 비준한 것에 대해 이란의 협박에 굴복한 외교라며 비판
 - * 「아사디」는 '18.6월 이란 경제제 행사 겨냥 폭탄테러 모의 혐의로 징역 20년 선고

미주

- 美, 코로나 팬데믹 기간 ‘아시안 증오 사건’ 급증
 - 7.25 美 언론은 코로나19 상황이 본격화한 '20.3.19~'21.3.31 신고된 미국내 아시안 증오범죄는 11,467건이며, 이 중 한인 대상 범죄는 중국계(43%)에 이어 두 번째로 많은 1,835건(16%)이라고 보도
 - * 유형별로는 괴롭힘(67%), 폭행(17%), 의도적 기피행동(16%), 온라인 증오(9%) 順

아·태평양

- 호주 법원, ‘극우테러 옹호’ 남성 징역형 선고
 - 7.25 호주 법원은 극우주의자 「타일러 재코백」(20세)에게 텔레그램에 소수인종·동성애자에 대한 폭력 조장, 히틀러 찬양, 테러 선동 등 내용의 글을 게시한 혐의로 징역 18개월 선고

중 동

- 이란 反체제 단체, 테러위협으로 유럽내 국제행사 취소
 - 7.22 이란 반군조직 인민전사기구(MEK)는 7.23~24 알바니아 수도 티라나市에서 이란의 인권탄압을 규탄하는 '자유이란세계회의'를 계획하였으나, 테러위협 첩보에 따라 행사 취소
- 시리아, ISIS대원 가족 146명 타지키스탄에 인도
 - 7.26 시리아 정부는 알홀수용소에 수용중이던 타지키스탄 국적 ISIS대원의 가족 146명을 타지키스탄측에 인도하였으며, 타지키스탄 정부에서 절차를 거쳐 이들을 자국으로 송환할 것이라고 발표
 - * 각국은 극단주의 사상 확산을 우려해 수용소내 자국인의 국내 송환에 소극적

아프리카

- 나이지리아, 테러예방 위해 '오토바이 운행금지' 검토
 - 7.22 나이지리아 정부는 최근 무장괴한의 오토바이 이용 테러가 계속됨에 따라, 반발 여론에도 불구하고 테러예방을 위해 국가 숲 지역에서 '오토바이 운행금지'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발표
 - * 나이지리아 인구 2억여명 중 약 20% 이상이 오토바이를 보유한 것으로 추산
- 에티오피아, ISIS 연계 테러 혐의자 454명 검거
 - 7.24 에티오피아 보안·정보 합동테스크포스*는 최근 대테러작전을 통해 수도 아디스아바바에서 테러공격을 모의한 혐의로 알샤바브·ISIS 등 테러단체 연계 혐의자 454명 검거
 - * 국가정보보안국, 국방군, 연방경찰위원회, 정보네트워크보안국 T/F
- 말리, 알카에다 연계조직 "정부軍 기지 공격" 배후 자처
 - 7.24 말리의 알카에다 연계조직 '카티바 마시나'는 수도 바마코市 인근 군기지 공격(7.22, 사망 1·부상 6)의 배후를 자처하며, 러시아 용병업체 '바그너 그룹'의 대테러戰 개입에 대한 대응이라고 발표

나이지리아, 보르노주 장례식 테러

- '19.7.27, 10시경 나이지리아 보르노주 난자이 지역에서 보코하람(Boko Haram) 조직원들이 장례식 행렬을 겨냥해 총기를 난사해 65명 사망·10명 부상
- 테러범들은 오토바이와 밴차량 등을 이용해 공격대열을 형성하고 장례 행렬에 대해 AK-47 등 소화기를 난사하였으며
 - 분노한 주민 일부가 자신들에게 달려들자 이들을 대상으로 재차 사격을 가하여 수십 명의 사상자 추가 발생
- 사건 직후, 보코하람은 공격 배후를 자처하였으며, 정부 관계자는 해당 테러사건이 同 지역 시민자경단이 보코하람 조직원 11명을 사살했던 것에 대한 보복으로 판단된다고 발표
- 한편, 나이지리아 「부하리」 대통령은 테러범에 대한 강력한 응징을 천명하고 나이지리아 軍·警에 대대적인 보코하람 소탕작전을 지시
 - * 하지만 정부 작전은 보코하람의 활동지역에 비해 부족한 병력투입으로 인해 실패

< 나이지리아 시민자경단(Nigerian Civilian Joint Task Force) >

- (배 경) '09년 나이지리아 북부에서 보코하람 주도로 발생한 반란에 대응하기 위해, 정부의 공권력이 미치지 못하는 지역에서 '지역민 스스로 무장하여 방어한다'는 개념에 따라 나이지리아 정부 주도로 '13년 설립된 시민 민병대 조직
- (역 량) 마을 단위 조직을 편성, 전체 26,000여명 규모로 운용되며 주로 소화기로 무장
- (특 징) 나이지리아 마이두구리·보르노주 등에서 창설·운용되고 있으며, 보코하람 조직원들을 색출하고 교전을 벌여 다수를 사살하는 등 정보수집·테러범 색출 등에 강점을 나타내는 반면, 민간인 학살·지방군벌화 등의 문제점 노출